



대주 피오레 '수도권 미래 친환경 도시' 선도

용인 공세지구 16만평 민간도시 첫 개발
어제 모델하우스 개관…2,000가구 분양
용적률 140%대…휴양림·호수공원 연결

대주건설이 전국 최초 민간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용인 공세지구내 아파트 분양을 시작으로 16만평 규모의 복합미래도시 조성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특히 공세지구는 광주를 기반으로 한 대주건설이 전국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새 브랜드 '피오레'를 적용한 첫 번째 수도권 사업이라 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주건설은 2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에서 모델하우스 개관식을 갖고 용인 공세지구 '대주 피오레' 아파트 2천가구에 대한 분양에 들어갔다. 분양가는 평당 900만~1천250만원선이며, 판교 등 공공 백지개발지구와 달리 입주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2009년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모든 가구가 '3베이'(배란다에 거실·방이 3개 접한 구조) 이상 설계인 데다 일부 세대는 양면계방형으로 설계하는 등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 밸코니 확장시 공간을 제공되며, 최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포켓발코니도 일부 세대에 적용된다.

이밖에 초고속정보통신과 무인 경비 시스템 등이 도입되는 등 첨단 흠클리어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는 것도 특징이다. 이날 개관식에는 5천여명의 고객들이 모델하우스를 찾아 140%대의 용적률과 3만8천여평 단지 공원 등을 갖춘 친환경 복합미래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주건설은 이날 행사장 입구에서 일렉상상 '썸'의 공연을 시작으로 모델하우스를 공식 오픈했으며, '카페존 서비스', 현악4중주 공연 등 기념 행사를 벌였다. 또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50인치 PDP TV, 지펠냉장고 등 상품을 증정하는 한편 '월드컵 승리기원 이벤트'로 월드컵 응원티셔츠를 증정했다.



21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에서 열린 용인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모델하우스 개관식에 5천여명의 고객들이 몰려 140%대 용적률과 3만8천여평 단지 공원 등을 갖춘 친환경 복합미래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분당=나영주기자 mnja@kwangju.co.kr

◇최초 민간도시개발 시도=용인 공세지구는 대주건설이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지구로 첨단 벤처단지와 연구소, 아파트, 유통상업시설, 공원 등의 복합 단지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지상 15~25층 24개동에 A단지 38~54평형 710가구와 B단지 45~79평형 1천290가구 등 총 2천가구에 달한다. 분양가는 평당 900만~1천250만원선이며, 판교 등 공공 백지개발지구와 달리 입주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2009년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모든 가구가 '3베이'(배란다에 거실·방이 3개 접한 구조) 이상 설계인 데다 일부 세대는 양면계방형으로 설계하는 등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또 밸코니 확장시 공간을 제공되며, 최근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포켓발코니도 일부 세대에 적용된다.

이밖에 초고속정보통신과 무인 경비 시스템 등이 도입되는 등 첨단 흠클리어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로 공급되는 것도 특징이다.

또 이 아파트의 건폐율은 7.9%

(주택B블록)로 대지면적 5만2천평

가운데 건물이 차지하는 부분이 4

천122평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 일반아파트의 건폐율이 1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친환경적인 단지 여건을 반영한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로 낮을수록 주거 환경이 페적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또 대규모 중앙테마광장을 중심으로 단지 곳곳을 공원화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위해 중앙테마광장에는 대규모 휴트니스센터도 조성된다.

공세지구는 보라지구와 연결된 생활권으로 용인개발축의 중심선

상에 위치해 있으며, 서울 강남까지

4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교통의 요

지에 입지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

원IC과 기흥IC가 인접해 있으며, 국가지방지지도 23호선이 지구 인근을 통과한다. 2008년 완공되는 분당선 연장의 상갈역과도 인접하며, 23번 국지도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향후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대주건설 이영준 사장은 "공세지구는 16만평 규모의 기흥호수공원이 인접한 대다 삼성전자 및 르노삼성자동차연구소 등이 인접해 있어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창사 25주년을 맞아 '피오레'와 함께 도약하는 해'를 올해 경영목표로 정하고 향후 3년간 매년 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최경호기자 choice@

대우건설 매각, 출속 논란

심의 1시간전 자료 제공…검토 못해

광주 연고 금호·프라임 막판까지 경합

20일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매각심사소 위원회 심의를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심사위원에게 입찰서류가 전달돼 출속이 아니었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정경제부 산하 공자위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연기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간위원들은 "대우건설 매각처럼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는데 회의 1시간 전에 자료를 주고 엄청난 양을 모두 검토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인수합병(M&A)인 대우건설 매각과정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M&A 과정에서 가장 기본 원칙인 비밀유지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각 초기부터 자산관리공사가 입찰참가업체들에게 나눠준 본입찰안내서가 통째로 외부로 흘러가더니, 입찰가마저 유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의 서류를 끔끔히 검토해야 하는 공자위원들에게는 회의시작 직전에야 서류가 전달됐다.

대우건설 인수전에는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을 비롯 프라임·유진 등 광주·전남 연고 3개 그룹과 두산그룹·삼한기업 등 5개 컨소시엄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중 6조6천억원의

최고 가격을 제시한 금호가 유리한

고지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우건설 우리사주조합을 끌어들인 같은 광주 연고의 프라임그룹이 막바지까지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 금호 유력

매각소위 오늘 발표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는 22일 발표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캡코)는 2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심사소위가 오늘 심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22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공자위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선정결과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매각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4시간 가량 심의를 진행했으며, 기존 평가결과에 대해 무리없이 심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갑근세 5.7% 종소세 3.5% 증가

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세수는 24조6천505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 이중 갑근세는 10조3천822억원이 겨우 전년의 9조8천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이, 예비 협상대상자로 프라임그룹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날 매각심사소위의 추가 심의에서도 별다른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비해 1천541억원, 3.5% 더 견졌다. 이 같은 실적은 2005년 본예산과 비교할 때 갑근세는 8.8% 많은 반면 종합소득세는 11.5% 적은 규모다. 또 정부가 작년 가을 제출한 주경과 비교하면 갑근세는 3.0% 적고 종합소득세는 1.4% 많다.

/연합뉴스

외환은행 매각 책임 경제관료 경질하라

참여연대·경실련 성명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경제관료들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핵심문제는 금융감독기구가 정치적, 정책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면서 야기된 관치금융의 폐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은 이른바 모파이라고 불리는 재정경제부의 인적 결합망이 법과 원칙을 초월하여 감독기구의 집행기능과 견제장치를 무력화한 결과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성명은 "특히 정계 과정에서 지위 고하나 전현직, 관료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관련자들의 개인적 책임을 질질적으로 면책하거나 모파이집단의 전횡을 방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에이스코리아	화물차 운전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6/23	062-955-2779
광주일보	일간신문사/편집디자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370-2214
포토양주	고객관리 및 상담/촬영보조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26	062-222-0948
㈜부리팀	모터조립 및 LED 조립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6/27	062-953-6462
㈜대창 E&T	[서울지사근무] 주유소 영업관리 책임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7	062-383-6831
KTF	KTF 페마사원 및 이르바이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7	062-369-5042
서암기계공업㈜	연구개발/품질검사/제품생산/제품포장	초대졸/경력2년	2,800~3,000	06/27	062-951-0081
INBET(인베트)	웹디자인 정규시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8	050-5223-9063
CJ엠디원	CJ주부 모니터요원(광주)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2-6390-8807
엘리자베스아덴 코리아	(광주)뷰티어드바이저(프로모션팀·남자포함)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30	02-2071-1808
㈜남양모터스	마케팅업무담당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30	062-384-7713

불리는 권위있는 상이다.

한전은 지난 1997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전은 특히 세계 최초로 89기의 해상찰갑 시공 신공법 개발 및 고강도 알루미늄 전선 등 신기술 적용과 환경친화적 공사시행으로 345kV 영종 해상송전선로를 건설,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전력수급난 해소와 연간 3천7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를 거둔 것이 수상이유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상승 지속" VS "연내 하강"

韓銀·민간경제연구소 경기전망 엇갈려

경기상승세가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연내 정점을 지나 경기하강이 시작될 것인가.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했던 2006년 경제전망에 대해 올해 상반기 성적표를 토대로 연간 성장을 전망치를 수정을 위한 정밀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이를 발표한다.

이달 29일 나오는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비롯해 한은의 '5월 국제수지동향' 등 월말에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발표된다. 따라서 이를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7월초 한은의 수정전망치의 향방을 살펴볼 예상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은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상승 흐름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안정해지는 했으나 전체적인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다.

이에 반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연내 경기점정에 대비해 상반기 중 경기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은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상승 흐름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안정해지는 했으나 전체적인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은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상승 흐름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안정해지는 했으나 전체적인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은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상승 흐름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안정해지는 했으나 전체적인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은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상승 흐름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안정해지는 했으나 전체적인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은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상승 흐름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안정해지는 했으나 전체적인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은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상승 흐름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안정해지는 했으나 전체적인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한은의 분위기는 최근의 경기상승 흐름이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비해 다소 안정해지는 했으나 전체적인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이다.